

신용보증기금과 현대차그룹이 함께 현대차·기아 협력업체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시작합니다.

- ❶ 현대차그룹 - 신용보증기금에 150억원 특별출연
- ❷ 신용보증기금 - 현대차그룹 협력기업에 3,000억원 특례보증 공급
- ❸ 시중은행 - 특례보증 받은 협력기업에 최대 △1.5%p 금리우대

8월 31일(목) 10시30분, 마포 프론트원에서 「신용보증기금 - 현대차·기아 협력기업 해외 동반진출 금융지원 업무협약식」이 개최되었다.

지난 16일 발표된 수출기업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로 개최된 업무협약식에는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신용보증기금 심현구 전무이사, 현대차그룹 김동욱 부사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신용보증기금과 현대차그룹은 현대차·기아와 해외 동반 진출하는 협력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특례보증상품을 공급한다.

현대차그룹이 신용보증기금에 15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신용보증기금은 현대차와 기아에서 추천하는 협력업체에 3,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한다. 특례보증은 최대보증한도 300억원, 보증비율 90%, 고정 보증료율 0.5%p의 우대조건으로 공급된다. 시중은행에서도 이번 특례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공급하는 경우, 최대 1.5%p의 우대금리도 제공키로 하였다.

현대차그룹 협력업체들은 해외투자와 해외사업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대기업 홀로 협력업체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자금을 모두 지원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대기업·정책금융기관·금융권이 협업하여 대기업과 동반하여 해외에 진출하는 협력기업을 지원한 최초의 사례이다”며 “이번 해외 동반진출사례가 다른 대기업에도 적극 전파되길 희망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우리경제에서 수출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수출기업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권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 [별첨]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담당 부서 <총괄>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책임자	과 장	남동우 (02-2100-2630)
		담당자	사무관	허 성 (02-2100-2632)
<공통>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	책임자	본부장	박주현 (053-430-4331)
		담당자	수석부부장	최중호 (053-430-4332)